

일본 인재사업 기업의 이직 방지 서비스 강화

- 최근 일본의 인재사업 기업들이 이직을 예방하는 서비스의 제공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정한 성과를 올렸음
- 신입 또는 전직 후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팔로업 하면서 정착시킴으로써 전문 인력의 육성이 가능

□ 이직 방지 서비스 확산

- 일본의 인재사업 기업들이 직원의 이직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잇달아 확충
 - 신입이나 경력 직원의 채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인재를 정착시켜 활용하는 인사 전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
-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'17.11월의 유효구인배율은 1.56배로 2개월 연속으로 상승하여 1974년 1월 이래의 고수준을 기록
 -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임금 인상뿐만 아닌 구인광고의 채용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이 보임
 - 한 명을 채용하는 비용은 구인광고비만으로 신입 약 45만 엔, 경력 약 40만 엔이 투입되고, 채용 후 연수와 같은 교육비를 포함하면 수백만 엔이 필요
 - 채용과 교육을 반복하는 것보다 이직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


□ 기업 사례

- 구인정보 및 인재소개 서비스의 대기업인 en Japan은 전직(轉職)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업에서의 활약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대상을 동사의 모든 회원으로 확대
 - 무료로 연수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고, 전직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활약하는 포인트나 유용한 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메일링 서비스를 3년간 제공

- en Japan의 정착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1년 이내 평균 이직률은 서비스 이용 전에 13.6%이었지만 이용 후에는 5.3%까지 감소
- 이용자 중에서는 “전직 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메일에 격려를 받고 직장에 적응할 수 있었다”는 목소리가 있었음
- 인재파견 대기업인 Parsol Holdings 산하의 Parsol Career도 인재소개 서비스를 이용한 전직자의 정착 지원을 개시
 - Parsol Career의 컨설턴트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과 관련된 문제를 초기에 해결이 가능
 - 향후 더욱 서비스를 강화하여 기업이나 구인자 각각의 이용을 늘릴 계획
- 채용 컨설팅 기업인 Tsunagu Solutions도 이직 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팔로우업 하는 서비스를 강화
 - 감정 데이터 분석 기업인 Emotion Tech와 자본업무 제휴를 체결, Tsunagu Solutions 자회사가 기술을 가진 직원들의 의욕을 측정하는 앱과 Emotion Tech의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만족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융합
 - 이 시스템으로 직원의 불만을 파악하여 개선 전략을 세움으로써 인재 정착을 촉진
 - 연간 30개사 정도의 신규 고객 획득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

□ 시사점

- 인재 관련 각 기업에서는 채용 관련뿐만 아닌 이직 방지나 인재 정착 분야에서도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새로운 서비스 개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임
 - 취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청년 실업에만 주목되는 경향이 있지만 기존 직원의 정착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
 - ICT나 앱 개발 분야에 강점을 가진 한국기업들이 이러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일본의 인재 관련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창출로 이어질 것임

- 또한 한국 청년들이 해외에서 취업되어도 직장에 적응하기 어려워 바로 퇴사하는 경우도 많고, 향후 국내외 불문하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직원을 케어하는 서비스가 비즈니스로써 확립되는 것으로 보임
- 이직 방지 서비스는 어떤 상황에 있는 직원이 이직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직 예방 방안을 도출하는데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나,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직원의 스트레스 상태를 관리하는 IoT 기술의 활용 등 제4차 산업혁명 분야와도 관련이 있어 많은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임. 

<참고자료>

넷케이신문(2018.1.11.)